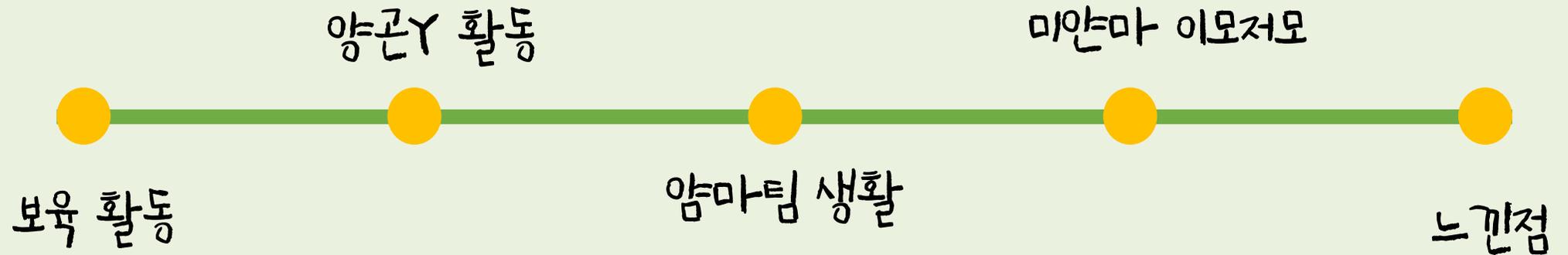


라운아미티 18기 맘마팀

우리의 두 번째 이야기, 미안마에 들어가다

10월 보고서 목차





[보육활동 첫 주차 - 종이접기] : [복습! 복습! 저번 주에 배운것을 응용합니다]

과일 교육 응용하기

저번 주에 배웠던 과일 중에
바나나 응아뽀띠! 를 종이접기로 접어볼거예요



무슨 과일인지 맞춰주세요!



세이아티! 미안미안 뽀바
(선생님 빨리 말해주세요!)





보육활동 첫 주차 - 종이접기

과일 교육 응용하기



바나나 완성!



- 세이야! 다 오케이이라?
세이야! 쿠니바!
(선생님 이거 맞나요? 도와주세요!)



- 카나 싸웁바 ~ 응아 지매, 라익로바
(잠깐 기다려요~
선생님 보고 따라하세요)



- 바나나를 만들어봅시다!
라익로바~ (따라하세요)



비밀 아닌 비밀!

생각보다 따라하기 어려운
종이접기, 결국 선생님들의
종이접기 배우기의 날
(바나나만 10개 동시에 접기)





▷보육활동 첫 주차 - 종이접기

동요 교육 응용하기

첫 주에 배웠던 동요 중에
떴다 떴다 비행기! 를 종이접기로 접어볼거예요



세이아! 미안미안 뽀바
(선생님 빨리 말해주세요!)

- Q. 레이엔 뽀엔 떠칭 흐맛미라?
- A. 호뽀!
- (Q. 우리가 배웠던 것 기억나지?)
- (A. 당연하죠!)





보육활동 첫 주차 - 종이접기

동요 교육 응용하기



- 종이접기의 시작은 세모 접기!
세모 다 접은 사람은 손들어보세요~



- 세이아! 레이잉 비잉~
세이아! 쿠니바!
(선생님 비행기예요! 어떻게 날려요?
도와주세요!)

- 다 만든 사람 저기 보세요!
(아다 쥬마)



비밀 아닌 비밀!

바나나보다 비교적 쉬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떴다 떴다 비행기도
동시에 10개 접기!





[보육활동 둘째 주차 - 종이접기]

만든 비행기 날려보세요!

[복습! 복습! 저번 주에 배운것을 응용합니다]



● 이렇게 잡고 날리면 돼~



비행기 완성!



● 세이아씨 뿌려~
(선생님 행복해요!)





[보육활동 셋째 주차 - 레크레이션] [이번엔 뛰어들어볼까?!]



Step 1. 꼬리잡기



● 꼬리잡기가 뭔지 알아??
아니, 처음들어봐..

● 세이야 옹지라? [선생님 믿지?
옹지대! [믿어오!]

😊 비밀 아닌 비밀!

아이들이 가위바위보를 설명해도 못하고
꼬리를 잡기전에 그냥 걷는게 좋았던 아이들..
결국 꼬리잡기가 아닌, 기차놀이로 강제 변경





[보육활동 셋째 주차 - 레크레이션]
[이번엔 뛰어 놀아볼까?!]



Step 2. 공 뒤로 넘기



● 신난다~ 넘겨! 넘겨!
차분 - 뛰어 넘지 말고 모두 참여해야해~



😊 비밀 아닌 비밀!
공을 만지는 것만으로 신난 아이들,
선생님들이 승부욕이 더 넘쳐서
아이들보다 더 급했던 공 뒤로 넘기!





[보육활동 셋째 주차 - 레크레이션] [이번엔 뛰어들어볼까?!]



Step 3. 공 던져서 골인하기



- 우리 등하차! 와이파이버!
- * 미안마는 하이파이버 X 와이파이버 0

아뵐다! [파이팅]



비밀 아닌 비밀!

생각보다 질서 정연하게
기다리고 줄서서 다치지 않고 모든 레크레이션
마무래!





[보육활동 넷째 주차 - 레크레이션] 
 [복습! 복습! 저번 주에 배운것을 응용합니다]

 레크레이션까지 응용하기
 공을 이용한 활동들을 응용해서 해보았습니다!

공을 활용한 레크레이션 - 볼링



- 생각보다 어려워했던 저번 주의 교육을 참조해서 아이들이 잘 했던 공던지기용 응용한 볼링
- 아뎐따! [파이팅]

- 쓰러지자마자 착착착착 세우기 바빴던 우리..





● 벌칙 1) 몽키 댄스~

[보육활동 넷째 주차 - 레크레이션] 

[복습! 복습! 저번 주에 배운것을 응용합니다]

공을 활용한 레크레이션 - 폭탄게임



레크레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건?
- 단연 벌칙!

- 노래가 시작하고 나서 공을 계속 돌리다가 사회자가 멈춰 하면 그 때 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벌칙을 받는 게임!



● 벌칙 2) 노래 부르기



비밀 아닌 비밀!

우리의 첫 보육이었던
나비야 와 떴다떴다 비행기
노래를 불렀던 아이들
벌칙이라면서, 우리 감동시키기
있어?? 없어???





[하우스 키퍼]

함께 하는 YMCA식구들 안 궁금해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라미에
(old building의 수장)
항상 우리에게 미안마 어를
알려주시려 일을 하면서도
어떤 단어를 알려주지 고민하시는
쏘 스윗한 우리 금요일의 수장!



부부
(웃음 마스터)
웃음소리가 정말 정말
매력적인 부부
옆집 형아 같은 매력과
뛰어난 그림실력으로
우리의 팔에 낙서를 해주는
부부!



쏘무민 (유 노우 킱복싱?)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에게 편안함을
선물해주는 YMCA의 새 식구
쏘무민! 체육관에서 만날 때마다
팔을 보여준다



쏘쏘 (시크한 부드러움)
시크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가끔씩 부드러운 웃음을 보내주는
YMCA의 새 식구 **쏘쏘!**
가끔씩 웃길 때 마다
가슴속에서 뽀뽀함이 생긴다.



원디투 (뚝순이)
사진으로만 봐도 뚝순이의
모습이 보이는 YMCA의 새 식구
원디투! 어딘가 모르게
지적인 아우라가 뽀뽀한다





[FULL MOON DAY]

미얀마에서 연휴를 맞이한 우리들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있고
바이킹과 관람차 같은 놀이기구도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또 YMCA와 적십자회가 연합하여 음식을 판매하기도 했어요!!

1년에 5번 있는
미얀마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FULL MOON DAY에요
이날은 촛불로 길을 밝히는데
스님들의 하안 기가 끝나고
부처님이 오시는 길을 밝게 하여
최대한의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밤에는 근심걱정을 없애기
위해 연등도 날린답니다~



플문데이에 도착~!



재밌는 관람차도 타고

(자세히 보면 무서워서 동공지진...)



음아 모항가 홍보하기

(제체니고 아베이바~)

꿀팁 제공~

- *하안 기는 스님들이 한곳에 머물면서 수행하는 일이에요
- * 이번 플문 데이에 이름은 더딘 쫓 이랍니다~





[FULL MOON DAY]

역시 최고의 즐거움은 먹는 즐거움!!!

풀문데이를 찾아가간 우리들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미얀마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튀김들부터
서양 음식인 햄버거
한국 음식인 떡볶이, 닭 강정
또 바퀴벌레를 튀긴 듯한
정체불명의 음식까지!!!
정말 다양한
음식이 많은 곳이었어요!!
다 먹어보고 싶다



꿀팁 제공~

* 음식과 음료수들은 1000~2000짖, 놀이기구는 1000짖 정도로
살짝 비싼듯하면서도 착한가격을 자랑한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쵸름)





디결혼식 탐방기

엄마 산드라 조카의 결혼식~ 아침 6시 반 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결혼식을 왔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신랑 신부님을 보면서 열린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몽글몽글 생겼어요!



결혼식을 보러 온
우리들~



축하드려요~
예쁘게 사세요!!



선남 선녀 신랑 신부님 ~!!





디결혼식 탐방기

결혼식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더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YMCA 식구들과 우리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닌 지인들의 힘을 모아 진행되었습니다.



수저 하나도 신중하게
완벽한 결혼식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는
우리들과 YMCA 식구들~





[함께 고민해보요 : 결혼식에서 아미들이 느낀 것]

산드라 엄마의 결혼식을 다녀오면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지만 그날의 우리들에게 그곳은 마냥 즐거운 곳은 아니었다. 그날 함께 결혼식을 간 YMCA 식구들은 예의를 차린 복장으로 준비하였다. 하지만 그날 우리가 그곳에 도착해서 본 그들의 모습은 주방에서 쉴 틈 없이 일하며 찌그러서 기니를 때우는 모습이었다. 밤을 새우고 결혼식을 도우러 온 상태, 전 날 아무런 휴식없이 의자를 깔았던 직원들. 또 끝나고 바로 다시 근무를 하러 가야 한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즐거울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우리들은 우리가 느낀 그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물론 우리와 다른 사회에서 살아온 그들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공과 사가 구분이 없는 이러한 모습은 옳지 않다는 생각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돈과 권력에 의해 사람들의 위치가 결정되고 이것이 요새 흔히 일어나는 갑질의 한 형태인가라는 의심을 갖게 했다. 더 많은 미얀마 국민들은 이러한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일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가 얼른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곤 Y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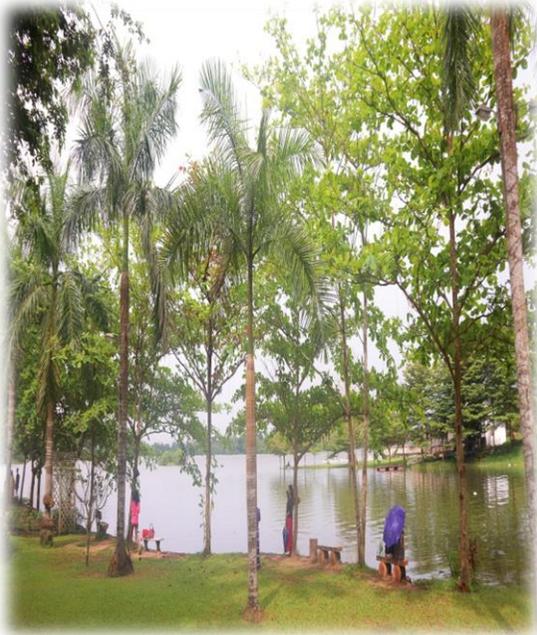
[양곤 대학교]

결혼식이 끝난 후 양곤 대학교에서 결혼식을 구경한 우리들
양곤 대학교도 구경했어요 미얀마의 서울대 라는 명성에 걸맞게 정말 예쁜 대학교였어요

양곤 대학교는 미얀마의 가장 유명한 명문대학교중 하나로, 문학부 과학부 법학부 등의 여러 학부로 구성되어 있는 대학교예요. 1996년의 학생운동 이후로 정상적인 학사학위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않고 있지만 만달레이 대학교가 양곤 대학교에서 1958년 독립되기 이전까지 미얀마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양곤 대학교의 지휘를 받았던 뿌리 깊은 대학교예요

꿀팁 제공~

*우리가 양곤 대학교에서 찾은 곳은 golden inya 식당이 있는 곳으로 소정의 입장료를 내면 정말 예쁜 풍경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너무나 예쁜 풍경의 대학교

이곳이 관광지여 대학교여



깨끗한 호수가 옆에 있는

양곤 대학교 부럽다~



빠져 버려라~





[인야 호수]

결혼식이 끝난 후 미얀마의 서울대 양곤 대학교를 구경하고 근처에 인야 호수도 구경했어요 피곤하지만 너무 예쁜 풍경들의 힐링 100%

푸릇푸릇한 인야 호수의 잔디밭~



인야 호수는 미얀마 양곤에 있는 가장 큰 호수로 깎뚜지 호수보다 4배 이상은 크며, 호수 주변으로 미얀마의 주요인사들의 저택이 자리잡고 있는 한국에 한강 같은 어마어마한 호수예요 양곤 대학, 여러 대사관, 아웅산 수지의 집도 이 근처에 있다고 해요



인야 호수에서 간지 폭발한 아알 레액 스~

704 스웻~



밀면 한방에 4명인데...





[미얀마 알츠하이머 협회 봉사 활동]

지난 달 알츠하이머 설명회를 시작으로 10월 둘째 주~셋째 주, 양마팀은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자원 봉사자 분들과 함께 팀을 나누어 노인 분들이 거주하는 민가를 직접 방문했어요

알츠하이머 검사(노인 분들에게 세 단어를 순서대로 기억하게 한 후 불시에 물어보기,
시계 그리기)와 병의 경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알츠하이머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같이 지켜보았어요



양마팀은 비록 인사만 하고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전부였지만 합법적으로(?)
미얀마 주민 분들의 집과 생활을 직접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인 분들을 위해 찾아가서 치매예방을 해주는 ymca의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대부분의 불교 신자 분들의 집에는 조그만 불상과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모든 집에서 저희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YMCA 성경 낭송대회]

● 화려하고 예쁜 전통 의상을 입은 팀들



아이들이 특히 죽이고, 죽는 연기를 진짜 맛깔나게 했다...



10월 넷째 주, 양곤 Y 4층에서 성경 낭송대회가 열렸어요.

YMCA 관련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이 율동 연극과 함께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많은 소품을 준비해 볼거리가 화려했던 팀, 중간에 잊어버려 서로 눈치를 보며 낭송했던 팀, 입력된 성경을 줄줄 외우며 로봇처럼 동작을 했던 팀 등 여러 팀들의 개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 중등은 서로 다른 구절을 암송했는데, 아이들의 연극을 보며 어떤 내용일 지 추리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양곤 Y 활동



[미얀마어 스터디] : 차훈, 현아는 공부하다 모르는 것을 에띠에게 질문하고, 하진, 화진, 한희는 띠띠와 함께 모임을 열심히 공부하는 중!

미얀마어 자음 시험 봤다
하진이 띠띠에게 very good 받았음~!
(나름 띠띠반 에이스)

10월에도 미얀마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양마팀~ 매주 화요일 양곤 Y 유치원 선생님 띠띠, 에띠와 함께 언어 공부를 했어요.
너무 어렵지만 벌써 자음 공부 끝내고 모음까지 갔다니 뿌듯!
차훈, 현아는 미얀마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우등생입니다.
하진, 한희, 화진은 열심히만 하고 있음... (마음만은 미얀마어과 수석 입학)
보육 쉬는 시간, 버스 이동 중, 방 안에서 틈틈히 공부하는 양마팀 칭찬해~ 🍏👍





[식사 준비 일요일은 내가 요리사!]

얌마팀의 식사는 감사하게도 삼시세끼 양곤Y에서 제공 받고 있습니다! (짜맛있음)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기도 했고, 한국의 맛이 그리워지는 순간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밤...

이 주에 한 번 일요일에는 얌마팀이 직접 장도 보고, 식사를 만들어요.
이번 메뉴는 **라면**, **비빔밥** / **김치찌개**, **감자전**이었습니다.



● 얌마팀의 메인 셰프,

이한희(25), 김치훈(24)

나머지는 주방 보조 역할에 충실함





[식사 준비 일요일은 내가 요리사!] 보조들은 열심히 재료를 손질하고, 셰프들은 열심히 요리했어요.



점심 준비하러 내려가다 우연히 마주친 원니, 배비가
함께 재료 손질을 도와줬어요!
감자 껍질을 순식간에 가는 손길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치훈: 잘해라...
하진: 응...(어쩔ㅠ)





[식사 준비 일요일은 내가 요리사!]

야채 볶은 기름에 끓인 라면,
계란 후라이를 넣은 매콤짬짬 비빔밥과
김치찌개 까지.
여기가 광주여 미안마여?



구수하고 담백한,
두부와 감자가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

간장으로 감칠맛을 낸
두툼한 제육볶음





[아띠 클럽 모집 시도! But...]

2017년 신종플루 때문에 1기 팀이 미얀마가 아니라 동티모르로 파견되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띠 클럽에 의도치 않은 1년의 공백기가 생겼어요.
1년의 공백을 뛰어넘고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아띠 클럽 같이 하실래요?”를 외쳤습니다!

페이스 북에 모집 공고를 올린 것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활동에서 만났던 청년 연합회 분들과 올드 빌딩 하우스 키핑 활동으로 친해진 분을 비롯하여 여럿 포섭하고
이전 아띠 클럽 멤버분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의 아띠 클럽 멤버들과
함께 350PPM도 하고,
END POVERTY 활동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꿈에 부풀었으나...

이한희 선생님께서
새벽 네 시까지 고심하시며
만드신 포스터
(개알 포인트: 산드라 간사님
이 항상 말씀하시는 Try
please!!)





[아띠 클럽 모집 시도! But...]

하지만 슬프게도 이메일 주소 실수 (ㅠㅠ), 오기로 하셨던 분들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불참, 무엇보다 맘마팀이 조만간 산 스테이트로 떠나는 일정으로 아띠 클럽의 운영이 이번 달은 힘들 것 같아 고심 끝에 한 달만 미루자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식 종류까지 다 정해둔 상황에서 참 안타깝기도 했고, 오고 싶다는 의사를 포하신 분에게도 정말 죄송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음 아픈 선택으로 인해 아띠 클럽의 운영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End poverty **OCT 17, 2018**
put an end to poverty

What do you think a poverty is?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absolute & relative poverty?

What is your poverty?



18th Raonatti Yam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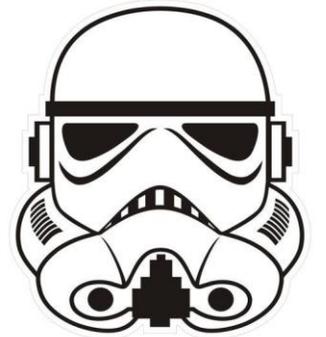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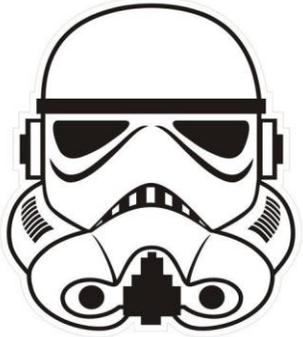
10월 17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예요
아띠 클럽 모집 중 아띠 클럽 페이지의 팔로워 분들에게
이를 알리고 빈곤에 대해 생각하고자
이한희 선생님께서 포스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이한희 웨건 (스피드 웨건 패러디)





[다사다난 꺾로 준비]



10월 말~ 11월 중순까지 산 스테이트 (이하 꺾로)로 떠나게 된 얌마팀.
꺾로에서의 보육 활동 생활 준비를 해야 했다.

특히 보육 활동은 2주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매일 아이들을 만나며 여태 했던 프로그램은 물론이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몰아치듯이 해야 했기 때문에 기나긴 회의의 행군을 한다.

아이들과의 첫 만남, 여태 했던 보육에서의 피드백,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 준비물까지
정리를 끝낸 얌마팀은 5층 도서관으로 내려가 색연필 물감 정리를 하기로 한다.





[다사다난 껌로 준비]



5층에 하하 호호 떠들며 내려온 맘마팀.

하지만 그들은
색연필과 크레파스, 물감 등이 담긴 상자를 건드리자마자
엄청 많은 바퀴벌레들이 공중으로 뿔 날아오르는 기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평소 벌레가 나오면 호들갑을 떨며
오바쌌바 떠는 화진하진, 차훈은
평소처럼 오바쌌바 소리를 지르며 펄쩍 뛴다.

이 세 명과 달리 능글하게 빗자루를 덩석 잡은
두 명의 영웅이 있었으니..

(진짜 벌레 사진은 사진으로도 보기 힘들기에 그냥 바퀴 사진으로 대체)





맘마의 킹갓제너럴임페리어저고저저고구세주



이한희
-맘마의 세스코

이현아
-검없는 막내





다사다난 껌로 준비 (1)

도망가는 벌레들을 한 마리씩
제거하는 모습이 정말 늠름했습니다.

나머지 세 명이 우뚝 서서
벌레가 보이면 아악!!! 저기! 아악!!
비명을 지르며 위치를 알리면
어디? 이기? 죽어라! 하며 내리치는 현아와
묵묵히 벌레를 추격하는 한희의 모습은
두고두고 기억될 거예요.

잊지 못할 늠름함
기억할게! 기억할게!



바퀴벌레를 향해 기침없이 정의의 내리치며 기적을 행하는 킹갓제니럴엠펜터러저고 두 분





[다사다난 께로 준비 2]

우당탕탕 소동이 있었지만 께로 준비는 순탄하게 이어졌습니다.
산드라 간사님께 준비물을 말씀드리고, 함께 사러 갔어요.

처음에는 오션 마트에 갔지만
필요한 준비물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일단 있는 것만 사고, 큰 문구점으로 이동하기로 결정.

다행히 문구점에 나머지 준비물들이 있어
필요한 것들을 모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얇전히 보육에 사용될 준비를 하고 있는 재료들





[쉐다곤 파고다 방문기]

TIP. 다리가 보이는 짧은 하의는 입장이 불가하며,
맨발로만 파고다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All about Shwedagon>



day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쉐다곤 파고다

Photo by 차훈



night

: 쉐다곤 파고다는 미얀마인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보려고 해요
쉐다곤 파고다는 부처님의 머리카락 8개가 안치된 것으로 전해 내려오는 불탑으로, 미얀마 **최대의 불교 유적지**랍니다.
불교 성지 중 하나로, **국민의 89%가 불교신자**인 미얀마에서 큰 의미를 지닌 곳이에요
양곤 북쪽에 위치한 쉐다곤은 그 장엄한 크기만큼, 양곤 시내의 높은 건물에서는 항상 빛나는 쉐다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





☞ 쉐다곤 파고다 방문기 2 ☜



이 날 쉐다곤 파고다는 양곤 Y 스텝 kathy와
 차훈, 현아, 하진이 함께 갔답니다.
 쉐다곤 파고다는 내국인에게는 무료,
 외국인에게는 **100000**짚의 입장료를 받았어요! (눈물...)
 파고다 내에는 정말 많은 불탑이 위치해 있었고
 많은 불교 신자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장엄한 쉐다곤과 한 컷!
 그 아래 미얀마의 전통 복장 **론지**를 입고
 양볼에 **다나**가를 칠한 하진과 현아



미얀마에서는 **태어난 요일**에 따라 성격이 특징지어 진다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쉐다곤 파고다 내에는 **요일 별 불상**이 존재하는데
 태어난 요일에 맞는 불상에 물을 얹으면서
 건강을 기원한다고 해요!!
 맘마팀도 주섬주섬 따라해봤답니다. ㅎㅎ





[맘마... 오션에 중독되다]



오션이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오션은 시티마트와 함께 미얀마에서 유명한 **슈퍼마켓** 이랍니다ㅋㅋ
미얀마 곳곳에서 시원한 파란색 오션 마트 마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양곤 Y 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오션 마트는
매주 주말, **맘마팀의 도파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 가는 길은 몰라도 오션 가는 길은 팀원 전부가 알고 있다는 사실.
1-2층은 슈퍼마켓, 3층에는 무려 **부산 어묵과 롯데리아**가 입점해 있어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면 오션 3층으로 향합니다!!
(그 와중에 오션 방문 한 달만에 3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음 ㅠ)
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과자에 중독된 맘마팀은
결국 오션의 **헤비 유저**(heavy user)가 될 수 밖에 없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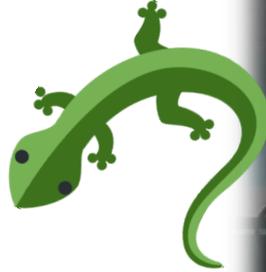


중독 인증.. 오션 전리품





[704 영화제 With 사백이]



What is 704?

704는 704호를 뜻하는 것으로 현아, 하진, 화진이 묵고 있는 방 호수예요
얌마팀은 YMCA 7층, 703호와 704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What is 사백이?

사백이는 704호에 사는 애완 도마뱀이에요
도마뱀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매우 당황했지만
이제는 식구로 여기며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사백이가 주로 있는 곳은 저기!! 에어컨 뒤랍니다.
사백이는 밤이 되면 이따금씩 소리를 질러요...
관심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도마뱀도 온다는 거 모르셨죠?
도마뱀 울음소리, 그거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104 영화제 With 사백이 1:

104 영화제는 104호 거주민들의 친목도모를 가장해 만들어진
과자 파티 시간이랍니다 :D (온갖 과자 다 등장...)
10월에는 2편의 영화를 시청했는데, 한번 살펴 볼까요?



WONDER

10월 15일 월요일

<현아 say>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였어요
어기, 어기의 가족,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평범함이란 무엇일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소중한 이들과 함께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

"No ones the ordinary"



THE
PENGUINS
OF MADAGASCAR

10월 24일 수요일

<하진 say>
으악 귀여워 줘금 <... 개물어버리고 싶은 펭귄들ㅠ
횡단보도를 변장술로 통과하는 장면은 가히 명장!면이었다.
펭귄의 사랑스러움을 한껏 느끼고 싶다면 추천이에요





[한솔님 오신날]



한솔언니는 라온아띠 미얀마팀 13기로
지금 미얀마 양곤에서 NGO 활동을 하고 있어요 :D
페이스북 아띠 클럽 페이지를 통해 연락이 닿아
10월 둘째주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친히 양곤 Y까지 와준 한솔언니는
맘마팀에게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사주었어요 ♡

산소같은 그녀.. ♡
미얀마에서 한국사람을 만나니 새삼 신기했어요
다양한 이야기를 한솔언니와 나눌 수 있어 좋았답니다.
이날 이후 워가 늘어나 양곤 Y의 음식이 부족하게 느껴진 건 안 비밀





미얀마 이모저모



10월호 부록-음식편 1 엄마 보고서 new corner

엄마팀의 10월 보고서부터는 “미얀마 이모저모” 코너가 추가되었어요!
바로 미얀마의 음식, 복장, 교통, 언어 등 문화 전반에 걸쳐 간단히 소개하는 코너예요

이번 부록 주제는 <음식> yeah!!!!

자, 한번 유심히 살펴볼까요?

1. 빨라따

이 음식은 바로 빨라따!!

로띠 안에 바나나, 계란, 콩 등 기호에 맞게 토핑을 넣고
크게 늘려 구운 다음 연유, 설탕을 뿌려먹는 길거리 음식이에요!
우리나라 호떡에 다른 토핑을 추가한 느낌인데
가격도 착하고 맛있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미얀마 빵 종류에는 “이자꺀”도 있어요!

슈가 - 2~300ks
바나나 - 100ks





미얀마 이모저모



2. 산카우스웨 (산누들)

700~1500ks



산 지역의 대표 국수로, 미얀마식 김치와 함께 비벼먹는 음식이에요
한번 먹어보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산누들의 양념은 고소하고 담백한 맛인데
정확히 어떤 맛인지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정말 맛있으니 Just Try!!

* 보통 산카우스웨를 파는 식당에서는
Chinese fried rice도 같이 파는데 한번 먹어보세요!
담백하고 조금 매콤한 볶음밥인데, 한국의 맛을 살짝 느끼실 수 있어요





미얀마 이모저모



3. 모헝가

500 ~ 1500ks



모헝가는 생선 (메기) 육수를 기본으로 한
구수한 국물의 쌀국수로, 미얀마에서는 주로
아침에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해요.

주 재료는 생선(메기), 마늘, 양파, 레몬 그라스, 병아리
콩, 계란, 어묵, 야채 튀김 등이 있어요.

플문 데이 축제 때 맛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 입맛에는 딱이었습니다. (화진)

구수하면서 비린 맛은 전혀 없었고,

무슨 향신료인지는 모르겠는데 향신료 향이 살짝 나면서
감칠맛이 났어요! 또 먹고 싶네요.

하지만 조금 비리고 추어탕 같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하진)





미얀마 이모저모



4. 코코넛 누들

500 ~ 1500ks



코코넛 누들은 모헝가와 맛이 비슷하지만,
조금 더 달고 기름져요.
치킨 육수에 코코넛으로 맛을 낸 누들이에요.

얌마팀이 먹은 코코넛 누들과 첨부한 사진은 생김새가
조금 달라요.

얌마팀이 먹은 코코넛 누들은 좀 더 볏고, 얇은 면과
평평하고 바삭한 야채 튀김이 함께 나왔습니다.
야채 튀김을 부수며 먹는 맛이 있는 누들이었어요,

하지만 호불호가 강한 편이라 (얌마 내에서)
얌마팀의 식단에서 지금은 사라진 비운의 메뉴예요...





한희

미얀마에서 2달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지금은 감사하려는 마음을 가지려 노력 중이다. 처음엔 두려움이 더 컸지만 지금 사람들과 인연을 쌓으면서 또 같이 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내는 이 생활이 많이 즐겁다~ 아이들도 너무 이쁘고 하우스 키핑도 재밌고 언제까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생활 자체가 재밌어서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다. 여기서 읽은 오렌지 비치랑 인생수업이라는 책 덕분에 거 같기도 하다.ㅎㅎ 정말 좋은 책이니까 다른사람들도 꼭 읽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 시간을 즐겨야지 생각하고 하고 싶은걸 생각하다 보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운동도 하고 싶고 책도 더 많이 읽고 싶고 지금 쓰는 소설도 얼른 끝을 보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한 느낌까지 든다. 내가 이곳을 오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생각들과 일들을 하면서 마냥 긍정적 이진 않을 지라도 오지 않았을 때보단 분명히 긍정적 일이라는 생각에 여기 온 게 행운이라는 생각이 든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다 잘하고 있진 않지만 그냥 잘 지내고 있다. 어떻게 하는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그냥 나에게 집중하는 느낌이고 살면서 이렇게 내 감정이 어떤지 많이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노력한 시간이 있었나 싶다. 생각보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ㅎㅎ 그래서인지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내가 원래 그랬나 느껴지기도 한다. 그냥 2달이 지난 지금 이 생활에 대해서 시작보다 긍정적이고 즐거워서 좋다~ 짱 재밌게 보내야지~





치후

몇 가지의 불만족이 순간 순간의 행복까지 잊게 만드는 느낌이다. 요즘은 뭔가 항상 압박이 있고 너무 나 답답하고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미래만 보는 나의 모습이 너무 싫다. 그렇다고 미래를 계획한다고 해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더 힘든 지금이다.

현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미래를 항상 계획하고 쫓고, 물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뭔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빨리 끝났으면 함과 동시에 너무나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순간인 듯 하다. 가족이 너무나도 보고 싶고 한국에 가고 싶은 때가 많을 뿐더러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이곳에 왜왔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더 힘들다. 나는 군 전역 후에 이제껏 해오지 않았던 학업적인 것, 또는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열심히 사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압박으로 변해가면서 나는 이곳에서 다 던져버리고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라는 확신이 있고 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된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을 텐데 여러가지를 하면 할 수록 맞지 않는 것 같고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하는 걸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해야할 것들을 불러놓는 것 같다. 물론 그 불러놓는 것들은 나를 더 억압하고 나를 너무 불안하게 만든다.





치후

지금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획해봤자 할 수 있는 것에 치중하자라는 결론이 나왔다. 근데 왜 그게 안되고 불안한 것인지, 나는 이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서인 것 같고 여기 있는 내 팀원과의 관계가 문제이기도 하면서 나 스스로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

사실 재미가 없었다. 물론 지금 벌써 두 달이나 지나갔고 나름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가도 나는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하는 마음에 너무 조금해지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느낀다. 이곳에서의 활동을 집중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가서의 생활만을 생각한다는 것을.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다짐하고 다짐한 채, 처음 목표로 잡은 것이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미얀마어를 열심히 해보려 했다.

지금 당장은 미얀마어에 되게 집중해서 하고 있어서 조금은 늘고 나름 그 동글뱅이들로만 보였던 문자가 읽혀지고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해서 신이 났었는데, 현지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미얀마어라는 차별성 있는 것에 집중했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지는 순간이다. 결국 나는 봉사러 하러 와서 나 스스로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니깐 조금 힘들다. 같은 것을 하더라도 마음가짐이 중요한 순간이다.





치훈

쓰다 보니깐 난 지금 굉장히 건강하지 않나 보다 ㅎㅎ
생각해보면 나는 이곳 현지인 친구들이 너무 좋고 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거울 뿐더러 아이들을 만
나는 것도 즐거운 것은 맞다.

또 나에게 지금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고 했을 때 남은 3개월을 채우지 않고 돌아가야만 할 정
도도 아닌데, 내가 나를 목 조르고 있는 느낌이다.

이 활동을 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하면서 들어왔을 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인 듯 하다.

지금까지 푸념만 늘어놓은 것 같아서 또 스스로 자존감을 깎는 내 모습을 이제는 떠날 산 STATE를
계기로 모두 던지고 이곳에서의 생활을 그리고 한 순간 한 순간의 추억들을 소중히 하기를 스스로에게 주
문한다.

“치훈아 2018년 10월 28일 인생에 하루뿐이 없는 오늘 이런 걱정만 하고 살기엔 아까우니깐 순간 순
간을 소중히 해. 즐겁지만은 않더라도 그런 순간 순간이 모였을 때엔 너의 행복한 추억이 되길 소망한다”

- 내가 나에게 -



맘마팀 소감



하진

다사다난해서 조금 느리게 갔던 9월이 지나니 10월은 순식간에 지나버렸다. 나에게 10월은 평안했던 한 달이었다. 크게 아픈 곳도 없고 생활도 익숙해져서 잔잔하게 흘러갔다.

9월에는 힘들 때 인터넷, 가족과 친구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했었다면, 이번 달은 생활 내에서 힐링을 느끼려고 했다. 마오플라바 유치원 뒤 호수 근처에 앉아 잔잔히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파란 하늘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리고 더위를 피해 유치원 옆 가게 맞은편에 화진 언니와 쪼그려 앉아있으면 가게 아주머니가 감사하게도 목욕탕 의자 두 개를 가져다 주신다. 거기에 앉아 귀여운 아기 고양이들과 놀고 있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Ymca 스텝들과도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장난도 같이 치고 만나면 정말 반갑다.

10월 중순부터 스트레칭과 운동을 시작했다. 셋에서 쪼르륵 얹드려 플랭크를 하고 골반 운동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즐겁고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이때까지 나는 무조건 돈을 내고 가야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한국에서는 작심삼일도 못했던 홈 트레이닝이 당연한 걸 무시하고 가능해졌다. 여기서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적도 많고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지만 이게 진정한 모미 아닐까?

우기가 끝나자 너무 뜨거워서 힘들다. 이 핑계로 밖에 나가는 것을 귀찮아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나가서 미안마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느껴야지. 이 곳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현아

잔잔하게 흘러간 한 달, 나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했던 것 같다. '나'에 집중했던 지난달과 달리 나의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들이 생겨났다. YMCA 리셉션에 앉아 있다가 키수납장의 지워진 방호수들이 눈에 들어왔고, 널서리를 하며 장난감을 만지고 바닥을 만지고 손을 입에 넣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버스 창밖으로 수없이 지나치는 집들을 보며 미얀마의 주거 환경을 눈에 담고 인도와 차도를 보며 미얀마의 교통 상황을 바라본다.

더 이르게 보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내 주변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세심함을 지나는 것은, 새로운 삶을 나와 마주하게 했고 무언가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할 힘을 주었다. 남은 시간들도 세심한 나로서 있고 싶었다. 미얀마에서, 앞으로의 일상에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직 안 끝났다 가독성을 위해 뒤로 넘긴다)





현아

나에게는 조그만 몇 가지 변화들이 생겼다.

첫 번째로, 아침 먹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스무살이 되고 나서부터 아침을 거의 먹지 않아 양곤 Y에서 처음 아침을 먹었을 때는 속이 더부룩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오히려 안 먹으면 허전했고 내일 아침을 기대하며 잠이 든다. 양곤 Y의 아침은 거의 토스트, 국수인데 빵순이인 나는 프렌치 토스트의 매력에 빠졌다. 요즘 내 취미는 한국 가서 어떤 아침을 해먹을지 리스트를 적는 것과 유튜브를 보며 맛있는 토스트를 만드는 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설렌다.

두 번째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미얀마 과자에 중독되고 난 이후로는 내 건강에 대한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자는 너무 맛있으니 차마 손을 뗄 수 없어 약간의 운동을 택했다. 운동이랑은 거리가 멀던 나지만, 스스로 다짐을 해가며 스트레칭, 복근 운동, 다리 운동을 하고 있다. 옆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언니들을 보며 동기 부여가 되기도 한다.





현아

(끝난 줄 알았죠?)

마지막으로 미얀마어로 더듬 더듬 소통한다. 미얀마어가 재밌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느리지만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짧게 문장을 만들어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물론, 성조와 발음 차이 때문에 내 말을 잘 알아듣지는 못한다. 그래도 말했다는 것에 혼자 마음속으로 만족해한다. 열심히 미얀마어를 공부해왔었는데 요즘 프렌치 토스트에 빠진 덕분에 미얀마어에 소홀하다. 정체가 꽤 오래갈 것 같다.

무슨 말을 쓰느냐며 팀원들한테 투정부렸는데 참 말이 많다. 이만 글을 줄여야겠다. 몇 마디만 더하자면 내일 꺾로로 떠난다. 2주간의 생활이 기대되기도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곳에서의 행복한 일들을 또 찾아나가야겠다. :D





화진

10월이 지나갔다. 활동은 9월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내가 느낀 것들은 더 많았던 한 달이었다. 특히 보육 활동. 9월에는 아이들을 만나서 즐겁긴 했지만 솔직히 그냥 음 애들아 안녕~ 재밌게 놀자~ 이런 기분이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조금 더 소중한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다. 비가 많이 왔던 날, 마오 플라바에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 평소라면 딱 찻을 낮잠 매트가 비어 있어 선생님들이 여기서 같이 낮잠 자라고 권유해 주셔서 그 매트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던 때가 유난히 기억에 남는다. 여유롭기도 했고, 누워서 우리를 쳐다보는 아이들도 평소보다 더 기억에 남고...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가끔 한국과는 다른 점을 발견하고 혼자 비교하게 될 때가 있다. 하지만 어쨌든 다 똑같은 삶이라는 생각을 한다. 살아가는 모습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인생을 사는구나 싶다. 그리고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 크게 아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몸이 건강해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제 정들었던 양곤 와이를 떠나 (짧은 시간이지만) 산 스테이트로 가는데, 팀원들





화진

모두 아프지 않게 잘 다녀오면 좋겠다.

하여튼 9월은 미얀마에 적응하는 나한테 좀 더 집중했던 시간이라면 이번 달은 미얀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11월은 어떤 시간이 될지 궁금하다. 솔직히 걱정보다는 기대가 크다. 지금 가장 기대되는 건 이틀 뒤 떠날 산에서의 농장 일이다. 너무 힘들어서 아유 괜히 좋아했다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기대만 할 것이다. 산 스테이트에서 농장 일 째 열심히 해야지!



우리의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